

여행작가 시선으로 바라본 '남해여행'

소규모 안전 팸투어로 진행

2021년 05월 26일 (수) | /배남길기자 | pmg1@gnynews.co.kr



▲ 남해 여행 이미지(사진제공=여행작가 송윤경)

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20명의 여행작가를 초청한 코로나 극복 구석구석 안전 팸투어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은 코로나시대를 극복하고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여행작가 20명을 초청 5월과 6월 2개월 동안 남해군 일대 가볼만 한 관광명소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구석구석 안전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팸투어는 관광 전문가 집단인 여행작가들에게 ▲여권 없이 떠나는 남해여행 ▲SNS 핫플레이스 남해 ▲미리보는 Summer Vacation In 남해 등 여행테마를 부여하고 여행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남해를 기록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안전 팸투어로 추진하기로 하고 4인 이하로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 여행작가 시선에 따라 계획한 일정에 따라 1박 2일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여행작가들은 취재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이 보유한 SNS 채널에 홍보 콘텐츠를 게시해 홍보하는 한편 여행관련 도서출판과 잡지 기고 등에 활용될 예정이어서 남해군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행토퍼를 활용한 홍보도 이번 팸투어에서 처음 도입돼 추진된다. 참가 여행작가들은 감성 남해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여기 참 좋다, 꽃섬 남해' '남해로 오시다 그대' 등 남해관광문화재단이 특별 제작한 여행토퍼를 활용, 홍보할 예정으로 감성 터치 남해여행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기존 정형화된 순환형 집단 팸투어 형식에서 벗어나 색다른 안전 팸투어를 위해 작가가 직접 일정과 코스를 설계한 창의성 높은 소규모 팸투어를 추진하게 됐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20명의 여행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남해군의 숨겨진 명소가 새롭게 조명해 창의적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남길기자 pmg1@gny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 하기